

신년하례회 “새해는 개혁교단 웅비의 해!”

노회장, 총회임원, 상비부장, 상임위원장, 기관 및 연합회회장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교단대표 이경근 목사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화상을 통하여 신년 하례회를 갖고 2021년을 개혁교단 웅비의 해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기로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 하례회를 기획하고 주관한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석계교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모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날 하례식은 서기 신연식 목사(대

배라교회)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중경장로부총회장 이영진장로(좌포 은종교회)가 기도하였으며, 총회장 이경근 목사(평안교회)의 신년사로 신년 하례식의 문을 열었다. 총회 상비부장, 신하 노회장, 상임위원장, 기관장 순으로 신년사와 감사 말을 나누었으며, 산하 연합회와 기관장들의 덕담으로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이날 화상으로 신년 인사를 나누는 상비부장은 정치부(김정용목사), 고시부(강대민목사) 전도부(정대진목사), 재판국(김종학목사), 출판국(박형진 목사이

며, 상임위원장. 황호관목사(현법위원회), 류현욱목사(신학, 이단위원회), 목회자계교육위원회(김양섭목사), 교회성장추진위원회(김정용목사), 그리고 총회합동위원회(박형진목사)가 참여했고, 전국장로연합회회장 조성운 장로(김교회)가 참석하여 장로연합회의 새해 비전을 공유하여 박수를 받았다.

참여기관의 면모는 총회개혁공보사,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전북개신원, 총회부흥사회, 전국장로연합회,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화상 하례회는 중경총회장 황호관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메시지

2021 신년사



총회장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단 산하 모든 노회와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정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교단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헌신적으로 수고해오신 존경하는 모든 중경총회장님들과 총회 임원들, 상비부 부장님들과 총회합동위원들과 그리고 노회장님들과 각기관장님들, 연합회 회장님들 모든 총회원들께 진심으로 머릿속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을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지구촌이 대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에 몰아닥친 초강력 한파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든 상황까지 겹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대면예배와 모임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개혁교단이 화합과 안정 속에 더욱 내실을 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공감과 협력에 기초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의 동력이 결집되어지길 간절히 열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지혜를 모아 찾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며, 코로나가 종식된 후를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운영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일에 의견과 힘을 집중해서 실천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교단 분위기가 아니라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더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는 교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교단 일을 증폭하여 하는 것 보다 새해에는 새로운 일꾼들이 더 많이 등용되어 함께 동역하고 협력 분담해 나가는 교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혁교단이 정말 바른 교단, 모범적인 교단이 되므로 교단에 대한 자긍심이 고양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을 이루고 분열된 기관이나 단체들도 연합하여 대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 속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을 오늘날에도 실천함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더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교회, 권세있는 교회가 되며 세상에 표상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전능하시며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송하며 우리 앞에 주어지는 길을 힘차게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더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며 작은 일도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나누어지는 관계이길 바라오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을 꼭 이루어주시길 다시금 기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에 김황용 목사 정기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다.



김황용 목사

지난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전북개혁신학원(원장 임종학 박사) 정기 이사회가 소회의실에서 모였다.

먼저 드려진 예배는 상임이사 김종봉 목사(남원교회)가 인도하였다. 법인이사 신장근 목사(장수순은강)가 기도하고, 이사장 이수봉 목사(엘마 오선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북개혁신학원 학장 임종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은임기가 만료된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이었다. 서기, 감사, 회계 및 신학교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곧이어 신임이사장 선출 건이 진행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주일 목사(모악교회)의 선관위 보고를 했고, 법에 따라서 진행된 이사장 선거에서 중부노회 중경노회장 김황용 목사(호사제일교회)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날 참석한 이사는 39명 중 36명이었다.

한편 새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황용 목사는 “무거운 짐을 졌으니 선임 이사장님의 수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05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일정확정

논문제목 :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사례연구; 그 대책과 영적 의미



총회 고시부부장 강대민목사는 지난 17일 오후 5시 화상회의를 통하여 105회기 준목고시의 일정을 비롯하여 고시준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의 위대한 개최 예배는 고시부서기 유남규목사(울림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채영구목사(금상교회)가 기도하고, 부장 강대민 목사가 골로새4:1을 봉독한 후에 기도하였으며, 중경총회장 황호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강대민 목사의 인사와 모두 발언에 이어서 류현욱목사(익산명동교회)의 기도로서 회무를 시작하였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105회기 총회준목고시에 관한 건이었다. 고시일정은 서류접수는 4월 30일에 마감하고, 고시일은 6월 15일 서울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강의실로 정하였으며, 예비소집 및 고시준비 세미나

는 5월 11일 전북개혁신학원에서 갖기로 하였다. 제출과목인 논문, 성경주해, 설교원고의 제목과 분문을 확정하였다.

논제는 현재 사회적 현실에 맞추어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 사례연구-대책과 그 영적 의미-로 정하였다. 성경주해 분문을 요한복음4:20~26을 출제하여 “비대면 예배로 인한 참 예배의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교원고는 마태복음 28:16~2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위임명령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고시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로 고시부 임원(부장, 서기, 회계를 포함한 5인 위원회)를 조직하고, 예비모임과 함께 갖는 세미나의 강사로 조직신학 황호관 목사, 정치 류현욱 목사, 교회사 정완득 목사를 각각 위촉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교단지 총회개혁공보 광고로 공고하기로 하였다.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교직원 화상회의

오는 23일 개강, 조선족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기로

총회개혁신학연구원(원장 임종학 박사)은 지난 1월 12일 시무사를 겸한 교직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저녁 8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사장 윤서구 목사(임마

누엘교회)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회의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새 학기 학사일정, 장학금 지급의 건, 재단이사회 소집 건의 건, 총회개혁신학연구원과 전북개혁신학연구원 통합의 건, 그리고 기타사항이

었다. 이러한 안건들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 끝에 새 학기 학사일정은 공시된 유인물대로 진행하되 개강일은 1월 23일로 확정하고 원장과 교수부장이 적절히 조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새 학기에

등록할 예정인 조선족 학생에게 50%의 장학금을 지급하되, 독자가로 하여금 장학금을 기부할 기회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총회장이경근 목사와 임종학 원장 간에 진행된 협의내용을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두 학교 간의 통합을 이사장 윤서구 목사에게 맡겨 적극 추진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로부터 독

학사(BA) 과정의 개설에 관한 건의를 받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 목회자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열어주기토 결의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2월 1일 전북개신원 졸업식에 맞추어서 오후 2시에 열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건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만하게 회무를 마치고 교수부장 황호관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였다.

2021년 105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8장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역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2. 고시일정

- ① 원서교부 / 서울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개혁신학원(063-252-1531)
- ② 제출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010-4020-0675)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이메일 : ynk8283@hanmail.net
- ③ 제출서류 / 1)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2) 신학교(원구원 과정) 졸업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명함판 사진 3매

- 1) 원서접수 / 2021년 4월 30일 당일소인유효
- 2) 고시료
- ① 원서대 / 20,000원 ② 응시료 / 400,000원(논문 및 제출과목 심사비 포함)
- ③ 특강료 / 100,000원(교재비포함)
- ◆ 접수시 응시료 및 특강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고시과목

- 1) 제출과목
- ① 논문제목
-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의 사례연구 : 처방과 영적의미 : 20매
- 양식/ 글자크기/ 견본조 11 줄간격/ 180, 여백/ 위쪽 25mm 좌우 25mm 머리말 15mm 쪽번호 아래쪽 중앙 -1- 아래쪽, 꼬리말 15mm

② 성경주해

- 신약 : 요한복음 4:20~26 주께서 말씀하신 참 예배 5매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하되 A4 5매

③ 설교문

- 마태복음 28:16~20 예수님의 지상명령 설교의 메시지 4매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A4 4매.

④ 제출마감

- 2021년 4월 30일 당일소인유효
- ⑤ 제출처 /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⑥ 문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4. 위원선정

- 1) 소위원 : 5명=부장, 서기, 회계, 황호관, 류현욱,
- 2) 심사위원 배정
- (1) 논문: 황호관, 서용진, 최승규
- (2) 주해: 정완득, 이부교, 최영일
- (3) 설교: 류현욱, 채영구, 신장근
- 3) 과목별 세미나 강사 선정
- 조직신학 : 황호관, 정치 : 류현욱, 교회사 : 정완득

5. 일정 및 장소

- 1) 예비소집 및 세미나: 5월 11일(화) 10시 전북개혁신학원
- 2) 고시일 및 장소: 6월 15일(화) 10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고시부장 강대민 목사 010-8007-1880
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고시료송금계좌 : KB국민은행 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社說

화상 소통 방법을 활용하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모델이고 완성판이라던 의회가 무단 진인자들의 의해서 점령당하고 의원들이 허둥대며 파산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선포하는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등단했던 펜스 부통령이 신변의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는 뉴스가 세계의 정가를 난타했다. 이런 소식들을 생생하게 화상을 통해서 실시간 제공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쓰기, 비대면예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불편한 정도로 익숙해져 가고 있다. 속히 이 터널의 끝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자리를 잡는 듯하다. 소위 화상 회의, 영상회의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 교단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이런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익숙하지 않아서 벅박대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회수를 거듭할수록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번에는 신년례회를 화상으로 가졌다. 기대보다는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상당수가 참여하여 제법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자평한다.

이런 식의 소통방식이 일반화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제는 모이지 않아도 된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무색해 졌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그러하다.

안산 새 은혜교회는 젊은 지성들이 재능기부를 통하여 화상 예배와 회의 기법을 도입하여 프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온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거의 모든 불편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다.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란단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우선 예산 타령을 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다. 기존의 시설을 잘만 활용하면 기본적인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비대면 예배라든가 예배가 아니겠는가? 과학의 이기를 활용하면 대면 예배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화상소통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는 기술이탈 것도 없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전화를 걸 수 있는 방식만 안다면 가능하다. 어렵다. 기계지다. 이런 선입견을 불식하고 첨단 목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바이러스는 성역이 없다.

신천지가 무차별 난타를 당하고 교주는 구속되었다. 거금을 추징하는 일도 함께 당했다. 소문만 이단이니까라며 위안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주에 있는 열방 선교 센터가 타겟이 되었다. 아니 타겟이 되었다기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옳을 것 같다. 코로나 19를 교회 탄압의 빌미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소위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 이후에 이런 기류가 강해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이러스는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퍼지고 간다.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리한다. 더구나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침을 튀기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치면 바이러스가 제때를 만난 것으로 알아서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방역 청이 모이지 말라고, 거리를 두자고 당부하는 것이다.

물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존폐의 위기에 몰린 교회가 한둘이 아니니 어찌 무심하게 지나겠는가?

성경에는 펜데믹에 관한 기록이 많다. 특별히 문둥병에 관한 기록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로서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 또한 전무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셨는데 격리라는 방편이었다. 성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 철저히 격리시키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이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역 수단이었다. 그때 그 방식을 현대인들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정부시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가 솔선하여 방역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를 철저히 지켜서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 19의 진원지로 지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장 신년사



황호관 목사 (경총총회장, 본보 사장)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신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차라리 죽은 자가 복되다는 욕의 말을 실감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역자 맞이 내 곁을 떠났고, 친구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보면서 일회일비해와 하고,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이 감염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보도와 소문에 낮을 가려야만

하는 참담한 나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 본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할 지경입니다.

지방의 한 목사님은 예배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해가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도 아닌데, 예배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신기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입니다.

정역을 구실로 삼은 예배당 문 닫기 정책이 아니기를 마음으로 비빌 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 대신에 '모든 일은 코로나로!'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통할 수밖에 없는 구실이고, 합리적 이유라지만 이후에는 어찌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집시다.

교인들의 의식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올 것이 예견됩니다. 성수주일의식의 후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감, 전염병 앞에 무력함을 보인 권위의 상실, 정부시책에 거의 무저항적으로 굴복(한)한 조라한 모습에 대한 구차한 변명,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를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확실하게 보여준 이종성,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진솔하고 적절한 대담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교회재정 운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폭삭 망한 자영업에 대한 정부대책은 믿을 수가 없다고도 아파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와 뭘 어쩌겠습니까? 수입이 없으니 십일조가 있을 턱이 없지요. 제4차 산업혁명에 한창 진행 중인데 제5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시대가 아니라 초 장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노

인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은 5명의 젊은이가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한 사람이 한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신생애는 좋고, 노인은 불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는 교회의 살림을 꾸릴 수 없습니다. 교회재정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던 그런 방식으로 는 유지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니까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무사안일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형그리 정신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지! 그때가 그림입니다. 그때로 목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구차할 일이 없습니다.

제자교육이 아닌 종의 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교회의 영적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형교회의 꿈에서 벗어나고, 성공 목회의 콤플렉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총회 개혁공보는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로 서려 합니다. 본래 우리들의 비전대로 정론, 학론, 덕론의 신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도해주세요. 함께 감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언



임종학 목사 (경총총회장)

력의 조화 그 자체이다.

구심력은 원운동에 있어서 물체가 운동의 중심을 향하여 가까이 가려는 힘이고, 원심력은 물체가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이다. 단순한 원운동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 두 가지의 힘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진 구심력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당이 가진 구심력과 야당의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나라가 평안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교단과 총회의 구심력과 노회와 개체교회의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교단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의 힘만 강하면 나라에 갈등이 생기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잃고 만다.

오늘의 한국정치현실이 그러하다. 초강의 여당이 초능력적인 구심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에 왜소한 야당은 전혀 원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갈등이 편만한 것이다. 조그마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구심력과 원심력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비전과 이념, CEO와 임원들의 태도 등이 구심력이라 한다면 직원

들은 활기차게 돌아가기 위한 원심력에 해당된다.

우리 교단과 총회로 눈을 돌려보자. 교단과 총회의 비전과 개혁이념은 구심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인원, 교단의 리더 그룹을 구심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교단과 총회를 이루고 있는 노회, 개체교회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원심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들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한 발전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호존중과 조화보다는 비판과 견제에 많은 것을 할애했고, 그로 인한 갈등과 상처가 심화된 상태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해야 했다.

이대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단과 총회의 비전을 설계하지 않고, 개혁이념의 구현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노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무한애정과 책임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노회와 개체교회가 교단을 위하여 희생하고 열심히 섬겨서 교단이 성장하고 총회가 발전하기만을 바란다면 이는 구심력 없이 원심력만으로 교단과 총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구심력과 원심력

원심력만 가지고는 원운동은 유지될 수 없다.

구심력 역시 그러하다. 원운동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가운데서만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힘의 원리를 행여 잊지 말아야 한다. 조적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된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돌고 있다.

그야말로 자전과 공전,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가 그대로 상존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나아가는 구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목표 지향성에서 이탈하려는 원심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안정을 원하는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계속 수정, 보완, 개선하려는 변화라는 원심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두 원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면 과연 건강한 삶이 유지 되겠는가? 두 개의 힘에 의해서 견제되고 조절될 때만 건강한 삶은 유지되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력만 있다고 원운동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만 있어도 역시 원운동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원운동 시키려면 두 가지의 힘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반면에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헛물거나 궤도에서 빙겨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의 수 1로 시작하는 금년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멋진 조화를 기대한다.

Advertisement for 'Reformation Public Report' (改革公報)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New. 편입생 모집요강' (신·편입생 모집요강) for Chungshin University (총신대학) and Cyber University (사이버대학) students.

Advertisement for 'Heidelberg Catechism Answer Book'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출판 보급) published by the Chungshin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전북개혁신학원 교수, 4명의 명예신학박사 수여식 성료

지난 2021년 1월18일(월) 오후2시 전북개혁신학원에서 미국 유나이티드신학대학교 명예박사학위(이수봉, 유호걸, 김종봉, 유남규) 수여식이 있었다. 유나이티드 명예총장 김용진 박사(증경총회장의 추천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여식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먼저 드려진 예배는 총회장 이경근 목사(평안)의 인도로 전북개신원 홍보처장 김관복 목사(완주)가 기도했으며, 전북개신원 학장이며 증경총회장 임종화 박사(재인 원로)가 "성숙함이 나타나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서 임목사는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것은 누구나 연구하면 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신학과 신앙을 평가인정하여 주는 명예신학박사는 실로 그의 미가 크다"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하게 된 수여식이지만 학위에 무게를 담은 수여자들이 무겁게 받아야 한다" 라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진행된 수여식은 전북개신원 총무처장 진상운 박사(에베에셀의 역력) 소개, 학위 수여 및 축의식에 명예총장 임종화 박사, 축사에 증경총회장 정원득 박사(성인), 전북개신원 실천처장 채영

구 목사(금상), 격려사에 증경총회장 류현우 박사(동명)가 순서를 맡았으며, 답사로 전북개신원 이사장 이수봉 박사(매마오신교), 답가로 전북개신원 선교처장 유남규 박사(아울림) 광고에 전북개신원 교목처장 유호걸 박사(예림)가 순서를 맡았으며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명예총장 김용진 박사의 축도로 모든 식을 마쳤다. 금번 수여식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이수봉 박사, 유호걸 박사, 김종봉 박사, 유남규 박사(이상 4명)이다.



동 정

이경근목사 - 신년하례
이경근목사(총회장, 평안교회는 12월 18일 총회세계선교회 간담회 참석하였고, 22일 전북개혁신학원 이사회 정기총회 참석하였으며, 31일 전북개혁신학원 학제장회의도 참석했다.

임종화목사 - 총회개혁신학
임종화목사(증경총회장, 재인교회는 12월 27일 전북개혁신학원 이사회 정기총회 축도를 하였으며, 31일 전북개혁신학원 학제장회의의 인도하였고, 1월 13일(수) 총신교직원 회를 주관하였다.

류현우목사 - 고시부, 신년하례
류현우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는 12월 27일(금) 총회세계선교회 간담회에서 대표기도를 했으며, 22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회 정기총회에서도 기도를 했으며, 1월 17일(주) 총회 고시부 화상회의에서도 기도를 하였다.

황호관목사 - 총회신학 교직원회의, 고시부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은 1월13일(수)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7일(주) 총회 고시부회의에 참석하였고 18일(월) 신년하례 화상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정원득목사 - 고시부, 신년하례
정원득 목사(증경총회장, 성인교회는 12월18일(금) 총회세계선교회 간담회 참석하였고 22(화) 전북개혁신학원 이사회 참석하였으며 1월17일(주) 고시부회의에 참석하고 18일(월) 신년하례에 참석하였다.

강대인목사 - 고시부, 신년하례
강대인 목사(증경총회장, 성현교회는 1월17일(주) 105-1차 고시부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준목고시 일정을 정하고 18일(월)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였다.

윤서구목사 - 신년하례
윤서구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는 1월13일(수) 총회신학연구원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였다.

박형진목사 - 신년하례
박형진 목사(부총회장, 새은혜교회는 1월 18일(월) 신년하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 인사를 하였다.

신연식목사 - 임원회
신연식목사(총회서기, 디베라교회는 1월11일(월) 신년하례 소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18일(월) 신년하례식 사회를 모았다.

김항우목사 - 전북개혁신학원 재단 이사장 선임
김항우목사(전북개혁신학원 이사장, 효자제일교회는 12월 22일(화) 전북신학원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유남규목사 - 고시부, 신년하례
유남규목사(전북중부노회장, 아울림교회는 1월17일(월) 제105-1차 고시부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았고 18일(월) 신년하례에 참석하였으며 19일(화) 유나이티드신학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박만진목사 - 고시부, 신년하례
박만진목사(총회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는 1월11일 신년하례 준비모임에 참석하였으며, 13일(수)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였고, 17일(주) 고시부 회의도 참석하고 18일 신년하례에 참석하였다.

신학강좌



정일용 박사

참고문서 : 정일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총신대출판부 2012

역시 신앙고리의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있어서도 새롭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에 취급된 신앙윤리의 가르침은 그 시대의 환경적인 요구에 한정된 모습이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경건윤리에 한정되어 있으며,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웃과 공동생활에 대한 윤리관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는 농경문화사회에서 경건되고 요구된 신앙윤리의 책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삶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소위 산업화된 사회이며, 산업후기사회로 불리지고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윤리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이웃과의 삶에 대한 책임영역은 이전의 농경문화사회에서 보다 훨씬 더 넓어져 있다.

특히 복음의 윤리적인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이웃차원과 관계의 자연적조물의 창조세계체계의 관계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삶의 환경이해를 전제하면, 현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윤리적인 영역은 역시 확대되었다. 개인의 성윤리를 비롯하여, 배우자 선택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XII

과 부부관계, 피임과 임신중절과 낙태, 가정(가족)윤리, 정치윤리(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윤리 등에 대한 믿음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적인 생태계와 관련하여 유전공학의 발전과 심지어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알파고'란 인공지능인간 로봇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기술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윤리적인 주제들과 관련하여 올바른 신앙태도를 위한 성경적인 입장의 합당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현대적인 신앙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로는 대답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요리문답서가 이러한 신앙내용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신앙윤리에 대한 표준적인 신앙지침(교백)을 신학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그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요리문답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정확히 말하면, 현대적인 신앙고백과 신앙윤리의 표준을 제시한 신앙고백과 신앙윤리고백서와 이에 따른 새로운 신앙교육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에 적용된 교수학습방법의 낙후성의 문제이다.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에 적용된 학습방법은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엮여놓은 지극히 연역적인 방법에 의존된 모습이다.

그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에게

신앙을 이해시키고, 고백에 이르도록 해주려면, 주입하는 방법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 무리감이 전체 된다.

구미교회들에서 역사적인 요리문답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주로 신앙의 교리를 충분한 이해를 돕는 학습방법의 적용보다는 주입식에 의존한 교리암기의 강요방식이었다.

그리고 신앙교리를 배워 아는 것이 곧 올바른 믿음(고백)과 동일시 여기는 인식이 문제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요리문답학습방법의 개선이 항상 요구되었다. 특히 현대적으로 교수학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 요리문답교육에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신앙교리를 지나치게 이성적 차원에 서만 인식시키려는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감각기관의 활용과 신앙의 경험과 함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도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적절한 찬송사용도 중요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새로운 학습방법의 적용과 개선은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최선임을 생각하게 된다.

4.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4가지 관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사용해 온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이 보여준 신앙교육적인 역할 기능과 관계를 종합한 관점에서 본 필요성과 중요성이랄 것이다.

1) 기독교신앙의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방법으로서의 역할이다.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신앙은 교리의 지식적인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신앙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백으로서의 신앙과 기독교세계관으로서의 신앙이다. 전자(고백)는 기독교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신앙고백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은 만남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순종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뜻한다.

후자(세계관)는 역시 지적인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신앙을 표현해준 교리와 관계된 것이다. 즉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배우게 할 때, 신앙은 세계관으로서의 교리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기독교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성장세대들은 그러한 세계관으로서의 교리적 체계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접근할 때, 기독교신앙에 대한 의미미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바로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는 이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교육적인 책임수행과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의 교리적 체계를 따라 신앙을 배우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전수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인 세계관으로서의 교리적 체계는 언제나 6가지 물음에 의존되어 있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인가?(신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인간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기독론)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구원론) 교회란 어떤 곳인가?(교회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종말론)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경에 담겨진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요, 오늘날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신학학문체계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역시 기독교인들이 알고, 믿고, 소망해야 하며, 또한 삶으로 응답해야 할 사상의 가치들로서 성경신앙진리의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에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가와 성례의 가르침 등의 내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진리는 요약되었고, 기독교신앙의 기본지식으로 언제나 다음세대에도 전수되어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인 신앙전수는 단순한 신앙교리의 지식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고백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고백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예배(경배)하는 행위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가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신앙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을 전수하는 역할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의 첫 번째 이유로 본다.

2) 기독교신앙의 토대를 놓아주며, 올바른 신앙관(信仰觀)을 세워주는 역할이다.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요리문답교육은 원래 교회성장세대와 성인 새 신자들의 세례와 입교준비에 적용하여 신앙의 근본토대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다음호에 계속)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철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6,200,000	김양섭	650,000	배정옥	50,000
총회신학교	3,000,000	김성영	350,000	이부교	300,000
김 정 용	1,800,000	박춘배	350,000	박승희	50,000
류 현 옥	800,000	이경근	800,000	김종봉	300,000
박 형 진	2,000,000	강천기	50,000	서용진	50,000
경기 노회	1,600,000	김대인	100,000	박순중	50,000
전북 노회	1,300,000	신대식	100,000	이다윗	50,000
서울남노회	400,000	이해동	200,000	김경호	350,000
서울동노회	1,200,000	부평갈릴리	50,000	윤서구	200,000
전북동노회	1,200,000	육한수	50,000	박경남	1,000,000
전중 노회	650,000	노성수	50,000	임용태	50,000
남부 노회	100,000	대한예수교	50,000	심광섭	50,000
경서 노회	800,000	전기원	50,000	등문희	200,000

“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년 구독료는 5만원입니다.

※ 예매광고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會 改革公報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매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總會 改革公報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195-15)
전화: 02)742-3538, 010-6358-0191 팩스: 02)742-3539

지상설교

코로나에서 은총을 베푸소서! (시편 40편 1-17절)



김용진 목사 (경주교회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40년간이나 권좌에 있었고 시편의 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삼상 134였음에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 과거 은혜에 감사와 찬송(1-3절)

다윗은 웅덩이에 빠져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새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웅덩이는 자유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로 인해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삼하11장).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다졌습니다. 나쁜 습관의 웅덩이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제 못함, 게으름, 과음, 과식, 더러움, 거짓말, 악한 생각, 호색, 중상모략 악습의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환경의 수렁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과 곤경의 환경에 처했으나 자신이 변화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고후4:8). 하나님께서는 귀를 귀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웅덩이에서 끌어내시고 반석위에 세워 주셔서 감사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와 찬

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 현재에 내릴 결단(4-10 절)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체험적 신앙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육신이 순종하는 완전 복종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새 언약(렘 31:33)을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아니할 때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외형적인 것

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신실한 증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마음으로 기록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고 교훈하셨습니다(마 23:34).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입으로 전해야 하셨습니다.

3. 미래를 위한 기도 (11 - 17절)

코로나19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랑을 하나님께서 건져 내셨다고 온전히 끝까지 반석 위에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재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무수한 환란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요 16:33).

주의 긍휼과 인자가 그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를 죄와 실패와 악습과 환경의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시88:18)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 90:12)

지난 12월 초 저희 공동체의 U자매의 대학동기이며 절친 간호사 <셀베르>가 병원에서 근무 중 감염되어 2주 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어린 두 자녀들과 함께 저희가 간절하게 중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결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희 모임에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K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S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이 감염되어 고생을 하던 중이었는데 며칠 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부친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병원에 방문할 수가 없어서 어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기도하며 위로 했지만 자신 때문에 어머니를 잃었다고 깊이 자책하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나아함과 침묵만이 최선의 위로임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주께서 <셀베르>자매의 죽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그의 남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두 자녀도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U자매가 왜 주께서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잃었는지 육과 같이 슬픔 가운데 42장5절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자매를 격려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11월말, K시로 부터 2시간거리의 A시에 살고 있는 S형제와 만나 복음을 전할 때 형제의 아내가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가 급하다며 걱정하던 S형제의 부아가 마음에 걸려 다시 연락해보니 자신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이 되어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코로나로 부터 완치되고 더불어 아내 A자매의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하게 되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 믿지 않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성탄주일모임에 K시로 오기 어렵다는 F자매와 먼저 성탄절을 축하하며 심방할 목적으로 아내와 함께 2시간거리의 E시를 방문 했습니다. F자매는 예게 해의 M시에서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퇴역군인 남편의 새 일자리 때문에 중부내륙의 E시로 이주한 후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귀한 자매입니다.

T.국에서 온 기쁨과 사랑의 소식

김기쁨 사랑 선교사

12월 중순 2시간거리의 E시의 대학 졸업반 G형제(24)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G형제는 아주 명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학 교사인 부모가 이혼한 일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시간여 대화를 통해서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복음을 쉽게 이해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제시하던 제가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마침내 영접기도를 함께 하며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몇 달 후 대면예배가 가능하면 세례를 받았노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11월말, K시로 부터 2시간거리의 A시에 살고 있는 S형제와 만나 복음을 전할 때 형제의 아내가 폐암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가 급하다며 걱정하던 S형제의 부아가 마음에 걸려 다시 연락해보니 자신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이 되어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가 코로나로 부터 완치되고 더불어 아내 A자매의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하게 되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 믿지 않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 성탄주일모임에 K시로 오기 어렵다는 F자매와 먼저 성탄절을 축하하며 심방할 목적으로 아내와 함께 2시간거리의 E시를 방문 했습니다. F자매는 예게 해의 M시에서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퇴역군인 남편의 새 일자리 때문에 중부내륙의 E시로 이주한 후 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귀한 자매입니다.

F자매가 E시의 시립도서관에 찾아가 성경책 몇 권을 기증하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며 성경을 읽기 어려운 E시의 여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할 때 저희 부부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한 가정주부가 공공도서관에 가서 성경책 몇 권을 기부하는 일은 T국의 내륙소도시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그의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자매가 E시에서 주변 남을 약속하고, 몇 달 후 대면예배가 가능하면 세례를 받았노라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1월말 기준 T국의 확진 자가 2만8천3백 명이었는데 12월 초 3만 명을 넘었으니 T국을 유럽에 포함시킨다면 가장 확진자수가 많다고 발표한 후 확진자의 순위가 세계 8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T국 정부가 11월말부터 새해 2월까지 주말 금요일 밤9시부터 월요일 아침5시까지 전면 통행금지 및 65세 이상 외출금지라는 초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외국인관광객은 관광지에서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약5백만 명 분량의 중국산백신이라도 가져와서 새해 초부터 의료종사자와 65세 이상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 터널의 중반쯤에서 끝이 보이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모임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주말통행금지로 인해서 일단 20일 주일 성탄주일모임을 대면예배로 성찬식과 세례

를 주려면 계획을 포기하고 비대면으로 형제들이 모여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 했는데 함께 성탄절 오찬을 나누지 못함이 심히 아쉽습니다. 정부의 모든 모임금지가 내년 1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아마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T국이 러시아로 부터 S-400 미사일도입으로 인하여 미국의회에서 경제제재조치를 받게 되고 EU국가와 관계가 끊어지고 특히 프랑스 대통령과 T국 대통령이 날마다 설전을 주고



받으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정부와 유럽연합과 Nato의 제재조치 등이 영향이 미치면 사역자들의 비자발급에 걸림돌이 되고 실제로 최근 미국시민권자 한 명이 T국에 돌아올 때 공항에서 재입국허가가 있었는데 동부지역에서 쿠르드사역을 하고 있음이 그 이유가 아닌지 추측할 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T국의 복음화와 공동체사역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단초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제 왼쪽 귀는 건강한테 오른쪽 청력이 떨어져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에 진료 하러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난 후 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청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부터 들려오는 찬양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히 제 오른쪽귀가 예전처럼 들리게 해달라고 구하기보다 주님께서 저와 항상 동행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왼쪽 청력이 이상없음과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읽은 것이 잊혀 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알람소리에 잠에서 깬다면 감사 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불할 세금이 있다면 감사 하십시오. 당신이 과잉 할 곳을 찾기 위해 헤매고 있다면 감사 하십시오. 당신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K시의 공동체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모든 주의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의 믿는 자의 수가 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을 마칠 때 얼굴에 플라스틱 보호대를 쓰고 힘들어하는 점원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영수증에 물건 값이 두 번 찍히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던 것을 회개하며, 점심을 가져 오기위해 식당에 갔을 때(코로나로 포장만 가능) 장사가 안 되어 한숨 쉬는 주인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스프의 국물이 흐르지 않도록 포장은 잘 되었는지를 먼저 살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응원 덕분에 지난 12년 동안 K시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20년 주님의 성탄절을 축하하며 사역보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세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U자매의 친구 셀베르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서 두 자녀에게 복주시기를
 2. 어머니를 잃은 S자매가 상처를 잘 극복하고 주일모임에 나올 수 있고, 중환자실에 있는 자매의 부친을 치유해 주시도록
 3. A시의 S형제가 코로나로 부터 완치되며 부인 A자매의 수술을 주께서 도우시도록
 4. E시의 F자매의 남편이 예수를 믿으며 아내의 믿음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새로 사귀 E시의 G형제가 직업을 얻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 E시에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 후원관리 : pay to the order : GMP America(김기쁨 사랑지정)
P. O. 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총회개혁공보 1년 구독료 청구 협조문



총회장 이경근 목사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총회개혁공보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모두들 힘들겠지만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 개혁공보 1년 구독료 5만원, 명함광고비 30만원 한번 납부해주시면 신문발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회 분납하셔도 됩니다. 송금하실 때 꼭 교회명이나, 담임 목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개혁공보 구독료 1년 5만원
교회 명함 광고비 1년 30만원
노회 파송비 매월 10만원

계좌번호 농협/ 301-0140-5587-4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문의/ 010-6358-0191 편집국 / 박만진 목사



총회개혁공보사 | 발행인 이경근 목사
이사장 이충년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더불어 생각할 正論

새해에는 오직 믿음으로



류현욱 목사 (경총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코로나19로 일복진 묶은 해는 강물처럼 세월 따라 모두 흘러갔다. 이제는 21년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졌다. 우리는 묶은 해를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아야 했으며 새해를 맞고 싶지 않아도 이미 맞았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섭리에 순응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해의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주셨다. 원래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맞게 그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상을 하려면 그림을 심사하는 심사자의 마음에 들게 그려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칭찬과 은복을 받을 수 있다. 금년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살며,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는 복 있는 한해를 만들 어가도록 무릎을 꿇자.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는다.

1. 뒤를 돌아다보지 말자.

빌 3:13절에서 바울사도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였다. 1월을 영어로 January(제누어)라 하고 한다. 1월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로마의 신 가운데 야누스(Janus)라는 신이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서 한 얼굴로는 과거를 바라보고 한 얼굴로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January가 Janus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한다면 1월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달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과거를 잘했던 잘못 했던 간에 돌아다보지 말아야 한다. 왜냐, 지난날의 잘한 점을 생각할 때에 교만해지기 쉽고 잘못된 점을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과거의 실패가 앞날의 성공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어서 우리를 새로운 지평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이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만 살아야 하겠는데.

2.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자.

바울사도는 빌립보 3:14절에서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간다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에 여호와와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앞만 보고 전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였다.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andropos)라고 하는데 그 뜻은 "위를 쳐다보는 동물"이란 뜻이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다.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과 같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묶은 껍질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진실을 발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3. 새해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치 높이 달린 시계의 추 마냥 어느 시대에는 극히 좋은 방향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흔들려 왔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필요한 존재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교회가 아주 필요 없는 거친 길가의 돌맹이처럼 평가되기도 했다. 좋지 못한 평가가 내려진 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실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형식적인 믿음에서 찾을 수 있다.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보다 믿음의 실체가 내 생활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나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하겠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셨다. <믿음>은 영에서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명사인 Faith(헤이스인)데 이는 "신앙, 신념"이란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동사인 Believe(빌리브인)데 "믿는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믿는 일과 행하는 일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을 말한다. 믿음에 행동하는 생활이 뒷받침될 때에 참 믿음을 살아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성교회 담임)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생명의 근원 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특별한 소원을 주셨다.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틔다 미혹하는 사이비 단체 중 하나가 불사영생을 주장하는 신천지이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고자 하는 소

목양칼럼



박형진 목사 (부총회장, 새은혜교회)

사랑하는 정인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를 이렇게 아프게, 너무 아프게 떠나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에게 미안한 것은 너를 아프게 한 못된 너의 양모라는 인간이 다름 아닌 이 할애비 목사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하지만 정인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고서 입을 다물면 훗날에 너를 만날 때 어찌 너를 내 가슴에 안아 볼 수가 있을까 싶어서, 입을 열기로 작심했다. 너무나 아픈,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증인에 앵블린스는 고사하고 119 구급차도 아닌 콜밴에 실려 갔더니 이게 딸이나 되는 일이나? 응급실에서 세 번씩이나 심정지 상태를

세상의 복, 성경의 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가장 고조되는 때는 일 년 가운데 새해 아침이다. 새해 아침이 밝아 오면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복을 빈다. 또 새해에 서로가 주고받는 덕담 가운데 으뜸이 되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말이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개념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복은 '행복(happiness)'이라고 한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축복(blessing)'이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그 어원이 'happen'에서 나왔다.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happening'(해프닝)이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보면, 불행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후에 보면, 잘나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는 결코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은 'happening'(해프닝)이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소유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만족한 상태를 축복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축복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가변적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아들 양실들의 반역으로 맨발로 면발을 취하고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극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면서 행복을 노래하였다. 한편 성경이 말하는 축복(blessing)은 그 어원이 'bleed'에서 나왔다. 이 말은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는 뜻이다. 무엇이 축복인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는가? 더 많은 희생을 하라는 뜻이다. 즉 이웃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하며 섬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적인 복의 개념에 입각한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즉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왜 감격해야 하는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이다. 희생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 진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다. 시41:1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라."고 하였으며, 잠19:17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마6:33)하셨고, 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고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가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하여 축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정인아, 이 할애비가 미안해!

거듭하다가 그렇게 눈을 감았다니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나? 아프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스러져간 네가 내 눈에 밟혀서 이렇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입을 열었으니 그냥 들어 주렴. 정인아! 너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말아야, 사람은 본래 그렇다. 너의 양모이자 나의 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죄인인 것을, 너는 알고 있었기에 순진무구한 천사의 미소를 끝까지 잃지 않은 게지? 그렇지? 옛날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끔찍한 살인사건을 떠올려서 뭘 하겠느냐마는 그래도 정인아! 너의 일로 인하여 실망을 넘어 깊은 실의에 빠진, 그래도 좋은 착한 이웃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주의를 환기할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서 얘기를 꺼내는 거란다. 동생을 무참하게 죽인 가인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가끔씩 예쁜 정인이 같은 희생양(?)이라도 생기면 정인이 들어 허둥대다가는 이내 잊는 망각쟁이들이 요즘 사람들

이란. 어떤 이들은 종교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다가 이번엔 네가 당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 화들짝 놀래는 모습과 보고 너는 뭘 생각했나? 이 할애비는 말야, 나보다 훨씬 일찍이 앞서 가버린 정인이가 모든 사람의 선생이 되었고, 스승이 되어서 우대함을 깨우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한다. 좀 먹고 살기 부드러워졌다고 하여 배고픈 시절을 잊고 사는 못 된 인간들을 향하여, '어찌 사람을, 그것도 나 같은 어린아이를 깨나, 고양이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며 질투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서 어찌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요즘은 유기견을 확대하거나 고양이들을 쥐어박아도 동물학대 죄를 물어서 심하게 처벌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어린 네가 당하고 있는, 슬프고 고 통스럽다 못해 애절한 신음소리를 듣고서 세 번씩이나 신고를 했음에도 들은 척, 만 척, 했더니 정말 화가 나는구나. 그것도 민중의 지팡이요, 어린이들의 감자라는 경찰 아저씨들이 그랬다는 구나. 믿어지나?

정인아! 너는 너무 어리고 착해서 짐작도 못했겠지만 너의 양모는 너를 사랑해서 가슴으로 낳은 게 아니라는 구나 글썽,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돈은 모자라고, 그래서 알뜰한 피를 낸 게 가족 수를 따라 짐수를 더해 준다는 웃기지도 않은 제도를 악용했다는구나. 이 또한 물신에게 영혼을 판 현대인들의 민낯을 드러낸 게 아니고 뭐겠나? 정인아!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나 학문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들 믿고 있지만 실은 속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요, 공익 고발 자가 용기 있게 나서서 이 사악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단다. 그게 누굴까? 바로 너, 이 할애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 천사 정인이가 아니고 누구겠나? 너의 양모는 모든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선행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 한동대학교에서 통변역을 전공한, 그런 학력의 소유자라는 사실 때문에 배나 더 분개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까? 그런데 온 몸에 드리워진 퍼런 멍 자국과 장 파열로 인하여 뱃속에 가득인 피로써 호소하는 너, 정인이가 들려주는 피의 호소를 듣고서야 정인아는 듯 야단이구나. 정인아! 이 할애비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지를 너는 알겠지?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을 너는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어른들이 벌이고 있는 어설픈 행동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가 당한 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 이 온 후애야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런 일을 말이다. 국회의원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 심지어 여성 변호사들까지 사후약방문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너의 희생이 끝이었으면 참 좋겠나. 너 또한 그리 생각하겠지? 다시는 사후약방문이 없기를, 이 할애비 뿐 아니라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간절히 마음으로 빈다. 정인아! 이 할애비가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제는 아픔이 없는 곳, 학대가 없는 진짜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하렴! 사랑해! 정인아!

베트남 선교사 100명 모집

본 국제문화교류협회의 베트남 선교회에서는 2021년부터 베트남 전국에 걸쳐 100여곳의 현지인 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 영성이 충만한 선교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 베트남 선교 훈련원에 오시면 우선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 문화를 학습합니다. 현지인의 선교에 대한 노하우 교육방법도 학습하며 연구합니다. 특별히 현지인 노인과 어린이 선교 교육에 집중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충만 영성 회복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사 훈련원 입학자격 및 구비서류

가. 입학자격 :

- 1) 만 60세 이하 선교에 관심있는분.(특수의료사역 제외)
 - 2) 선교사 사명을 받은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 및 목사
 -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분
 - 4) 어린이선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 선교에 관심있는분.
 - 5) 전문인선교: 한국어교육자, 컴퓨터, 영상, 방송, 음악선교, 지휘(드럼,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등.
 - 6) 스포츠선교 및 특수선교: 태권도, 요가, 미술, 미용뷰티, 요리사, 영양사, 경험있는분 우대.
 - 7) 의료병원선교: 내과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외과, 방사선과외과, 한의사, 간호사.
- (베트남 현지병원과 협업하여 병원을 운영함)

- 나. 구비서류: 1) 입학원서(훈련원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 등본(전체기록본) 1 부
- 3) 신앙 간증서(A4) 2매 이상 4) 종향건강진단서(보건소 이상 의료기관)
- 5) 증명사진(여권용) 5매 6) 여권(복사부)
- 7) 자격증 소유자 한하여(자격증 복사부)

다. 전형방법 및 일시:

- 가) 원서접수 : 2021년 1월18일 - 2021년2월10일까지.(1차:전화접수 및 이메일 접수)
- 나) 면접시험 : 2021년 2월 15일~18일 (개별 통지)비대면다) 입학일정 안내 : 2021년 2월 18일 10:00시(정부 방역 조치에 따름).라.

훈련기간 ① 3개월코스 ② 6 개월코스 ③ 기타 면접을 통하여 기간확정

마. 특전

- 1) 졸업생은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베트남으로 파송
- 2) 베트남으로 파송된 선교사에게 직책과 전문직에 맞는 충분한 급여지급
- 3) 선교사님의 우수성과 능력이 인정되면 1년후부터 독립교회담임,확장교회 부여,
- 4) 부부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분에게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바. 모집인원: 1차 100명

훈련원장소: 열린교회: 경기 부천시 중동로 71번길58호 (1호선 중동역1번출구) 5분거리
E-mail 문의 : 한국 010-4313-3927. 김머슴 목사 ktk6375@hanmail.net
문의 : 개혁교단 사무총장 박민진 010-6358-0191

재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김양성 목사 (동주교회)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시작을 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창조의 계획과 인간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도 금년, 한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말씀의 존귀 신의 양이요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의존하는 사색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도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앞서 먼저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그분께 물어야 하고 아울러 응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성공 실패는 그분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바르게 평가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 결과를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인간의 계산적인 성공과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나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이다. 2021년 한해 우리 교단안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금년 한해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뜻을 이루실 것이다.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거리두기, 비대면, 집합금지, 마스크쓰기, 등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가지만, 곧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신년하례와 목사장로기도회가 화상으로 또는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힘있게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의 도전 앞에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이요 비전이요 꿈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도전을 합시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합시다.

그러면 장애물을 피할 수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가 필수이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게 도와 주실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균형잡힌 삶이 필요하다. 우리성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모든 족속에게 말씀으로 전도하여 세계를 주고 가르쳐 지켜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균형잡힌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다. 우리는 다시 대 계획과 지상명령을 모토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실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잃은 자를 찾아 전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교단차원에서 연구하고 실천을 합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실 것이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들이 노래하는 흥분의 길이 열릴 것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아 일어나 우리는 함께 가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의 희망은 오직주께 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이가 많고 나는 아니다고 하면서 할 수없다 하지 않습니다. 핑계와 중단을 안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사를 통하여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사가라와 엘리스벳을 통하여 세례요한을 주셨다. 그들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슬프소이다. 여호아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를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할때에 모세는 거절했다. 내가 너를 보내며 너의 입에 말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입이 되어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두겠다고 하신다. 이제 우리 온 세상에 가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위에 네가 그것을 뿜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 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삶을 살아 갑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시고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증경총회장, 본보 사장)

“대한민국의 통일은 5년 안에 가능합니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씨가 2020년 5월 3일 KBS 1TV '오늘 미래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나서서 던진 화두였다.

그는 눈부신 기술발전이 의한 미래혁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그로브 투표가 가능하게 됐으며, 또한 배링햄펄 터널/현일해저(진선)터널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단 2시간(2만원만에 한국과 워싱턴을 여행하는 꿈같은 전 세계 1일 생활권 지구촌시대의 도래를 예언하였다.

무지개 빛 환상만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의 세계 최저수준의 저 출산율을 기초로 '2300년 대한민국은 종말 된다.'는 충격적인 예측을 펼치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해결

의 대안으로 남북통일을 꼽았다. 그는 종말을 막는 마지막 대안은 남북한 통일뿐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오래전에 통일이 되어야 했다 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남북 상황을 한 마디로 '엄청난 차이'라는 말로 표현 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축발요소'라고 말하면서 통일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만드는 작은 축발요소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비행을 하는 드론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북한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만들고,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 세계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방법, 셋째, 국정수비대를 로버트로 배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 대화를 바꿔보자는 발상이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은 '위대한 자각'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위대한 자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종교적 자각, 정치적 자각, 자연재해, 기술발전 또는 개인적 자각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하면서 기상천외한 예측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제가 예측하는 통일시나리오는 지금 북한의 지도자에게 지금의 자

교회가 강요당하고 있는 언러닝!

리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자각'이라는 말대로 어느 날 아침 북한 지도자가 문득 '평화 중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통일을 이루고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면 전 세계가 그를 칭송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상천외한 시나리오인가? 실로 미래학자다운 발상이고 예측이라는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러저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일이 5년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한다는 말도 있지 않았다. 일단 물꼬가 트이면 상황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했다. 그렇게 되면 평화롭지만 그러나 매우 어려운 전환의 시기가 통일한국에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했다. 북한입장에서 언러닝(Unlearning)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새로운 교육 을 시작하는 미래의 키워드가 될 것

이라면서 통일의 열쇠로 언러닝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언러닝이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 전에 이미 습득된 정보를 지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주민은 처음에 분노,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과정을 거쳐겠지만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마지막에 "한국은 통일한국의 성패여부가 미래 교육에 달려있다고 봅니다."라는 말로서 강연을 마쳤다.

우리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남북 통일 이전에, 더 시급한 코로나 19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후 성패여부가 미래교육에 달려 있다는 다급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19, 그 이후 아니 지금부터 벌써,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거부하는 부정적인 과정을 견뎌내며, 한 걸음씩 걷고 있다. 언러닝을 강요당하고 있음이 한국교회의 피할 수 없는, 다급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다.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상황을 지워야 한다. 급진적인 경제발전의 달콤한 열매를 즐기던 그런류의 정보,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요, 민주국가 의 표상이라는 법률지식을 깨우치게 그리고 속히 지워야 한다. 광고만 하면 아무 제한 없이 집회를 열었던 불과 1년 전의 환상, 부흥사경회, 성수주일, 온전한 십일조 등, 반강제적으로 강요해도 말없이 순종의 미덕을 발휘했던 그런 환상적인 교회를 지우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없게 되어 버렸다. 1년 동안, 결코 길지 않은 시간에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다. 들어 본 일도 없고, 경험해 본 일도 없는 예배당 폐쇄! 비대면 예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 제한, 예배당 출입자 정보등록 등,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저항이나 반대도 없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가? 언러닝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의명분(?) 앞에 꼼짝 없이 이렇게 길들여져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 교회는 참으로 언러닝을 생각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날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에 비파와 수금을 걸었던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를까? 그것을 생각하면 숨이 차오른다. 기가막힌다.

신학&신앙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호에 이어 하나님 이해하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Attributes of God) 중 품성상의 속성에 대한 것이다. 절대적 속성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인 반면 품성상의 속성은 상대적 속성, 공유적 속성 혹은 실현상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우주 만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속성이다.

2. 품성상의 속성

(Personal Attributes)

첫째 존엄성(Sovereignty)이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어디에도 제약없이 없이 영계, 인류 및 물질 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통치형태를 말한다.

에베소서 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지존성 혹은 주권성을 절대적 속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마서 9:18-23의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듯이듯이 하나님의 주권성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상대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이들도 있다.

둘째 거룩성(Holiness)이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로부터 절대적으로

분리되었고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하여 서서 선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야 6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된 분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주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셋째 의로움(Righteousness, Justice)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변변되지 않으심을 말한다. 의로

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편파없이 실현하시는 태도인 의로움(Righteousness)으로 하나님에게는 도덕적인 결함이 없이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된다. 의로움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근거한 정의(Justice)로 이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8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고백하고 있다. 마치

이제는 자신과 그의 피조물들의 완전한 조화와 행복을 계획하셨으며 이 원리를 실천하고 계신다는 것

을 말한다. 선하심에는 하나님은 그 대상에게 있어 최선의 상태를 추구하시고 실천하심을 의미하는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 인간들을 대하시는 인자하심이 있으며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긍휼하심이 있으며 받을 자격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또한 하나님의 지식, 선포, 의지 및 그의 행위는 그의 실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므로 신뢰할 수 있음을 말하는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인 선하심이 표현되는 것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품성상의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속성들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전국교회예배안내

<h3>재언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p> <p>담임 임중학 목사 5497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6(중화산동27가) 전화 (063)225-0571, 222-0573 / 010-7294-0571</p>	<h3>성현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1:00 주 저녁: 5: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9:00</p> <p>담임 강대민 목사 085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10길 43(독산동) 전화 (02)884-2691 / 010-5479-7985</p>	<h3>덕소제일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2: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9:00</p> <p>담임 박만진 목사 12214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118-4 전화 (031)521-0691 / 010-6358-0191</p>	<h3>평안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1:00, 오후 3:30 수요일 밤: 7:30 구역예배(금): 오후 7:30</p> <p>담임 이경근 목사 5535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참영2길 85 전화 010-9928-8218</p>	<h3>광일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오후 3:00 수요일 밤: 7:30</p> <p>담임 장영광 목사 14205 경기도 광주시 광복로31번길 5(광명동) 전화 (02)2687-4127 / 010-5004-0114</p>
<h3>모악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05:0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7:30 수요일 밤: 7:30</p> <p>담임 홍주일 목사 551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634-2 전화 010-4170-9191</p>	<h3>소망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p> <p>담임 조신제 목사 14763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44-84 전화 032-346-1235 / 010-3727-9665</p>	<h3>예수소망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p> <p>담임 류정수 목사 35020 대전시 중구 괴로로 38 전화 042-585-7004 / 010-5333-1088</p>	<h3>남광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p> <p>담임 최갑철 목사 5512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 14길 7-3 전화 063-227-4191 / 010-3654-4191</p>	<h3>낙원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0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p> <p>담임 김정봉 목사 54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 2길 10 전화 010-2375-5937</p>
<h3>화평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기도: 4:3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00 수요일 밤: 7:30 금요일 밤: 오후 9:00</p> <p>담임 박중목 목사 5495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15길 3-3(서신동) 전화 (063)271-0691 / 010-2923-7798</p>	<h3>새록장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7:00 금요일 밤: 9:00</p> <p>담임 김만술 목사 13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5(상대원동) 3층 전화 010-8561-9192</p>	<h3>증심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오전 10:30, 오후 1:00 수요일 밤: 7:30</p> <p>담임 박경남 목사 1024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로 97-11(탄현동, 일선위버디네스) 101동 2507호 전화 010 8800-5342</p>	<h3>그루터기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p> <p>담임 최종만 목사 1220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49 전화 010-7544-0420</p>	<h3>한빛교회</h3>  <p>예배시간 세 번: 5:00 주일 낮: 1부 9:00, 2부 11:00 주일 석양: 1부 4:30, 2부 7:30 수요일 밤: 7:30</p> <p>담임 임용태 목사 04776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 전화 010-5397-2627</p>

소그룹 운영의 신학적 근거(12)



이해동 목사
(은누리사랑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적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교회의 사역은 성경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학적 기반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바른 신학적 토대 없이 실행하는 사역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흐를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그룹 운영의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한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본질 가운데 계신 세 인격의 공동체이다.

이처럼 공동체는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다. 공동체란 바로 하나님의 존재방식이었던 것이다.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다른 모든 공동체가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회교도도 유일신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한 본질 가운데 한 인격만이 존재함으로 자신의 한계에 갇힌 존재일 뿐이다. 초월적 존재가 단일성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으므로 결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완전한 상호관계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능 경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공동체적 속성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공체적인 경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만드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라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출현하였다.

이처럼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깊은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므로 그분은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참된 성경적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임이다.

2.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두려우시며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도우시고 우리 가까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시다.

초월성(위대함)의 하나님과 내재성(친밀함)의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이 이해와 인성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능가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재성의 하나님은 자극히 가까이 계시어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본성이 나타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며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내재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가장 잘 계시된 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오

신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어느 한 쪽을 강조하게 되면 그릇된 신학에 빠지게 된다. 이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고 범신론은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그룹의 통합된 예배와 소그룹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대그룹의 장엄한 예배에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소그룹에서는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님은 소유주이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우리 삶에서 주인이요, 소유주요, 왕인가? 예수님의 주재권이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서도 실제로 그분의 주님 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순히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두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생애는 현저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가 구원받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에게 발생한 실제이지만 그러한 영적 실제로서의 사건이 그에게 발생한 여부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고백과 고백에 뒤따르는 삶의 증거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자신의 신앙을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의 삶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의 고백의 진실성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Jerry White)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영원히 바꾸게 될, 주재권에 관한 진정한 결단을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서 사는 삶은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를 통해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그룹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받내게 하여 그리스도처럼 존재하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줄 것이다.

목양 내조記



양영자 사모
재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인교회 원로목사 임종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이 글을 쓰기까지

2020년 11월 7일 오후 2시에 남편 임종학 목사가 재인교회 담임목사의 직분을 마치고 원로목사 추대 예배를 드렸다. 행사의 순서가 끝날쯤에 남편의 퇴임사가 있었고 뒤를 이어 내게도 인사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미리 준비한 퇴임 인사의 글을

통하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남은 순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혁공보 사장 황호국 목사께서 단상에 오르셨고 축사를 하시면서 나에게 즉석 제안을 하셨다.

개혁공보의 필진으로 참여해달라는 주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놀랐다. 사역을 마치는 자리라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일 후에 황 목사님께서 개혁공보 12월호에 나의 퇴임 인사 글을 올리셨고, 계속해서 내조의 삶을 글로 써 줄 것을 부탁하셨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망설였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써 보기로 했다.

복음 사역자의 아내로서 나의 삶이 단순하지는 않았다. 또한 나의 삶이 사랑의 이목을 끌 만큼 특별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1학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글이 그때부터 53년 동안, 나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되돌아보며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1.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

나는 전라북도 고창을 월계리에서 1948년 5월에 2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해방 후 정치적 혼란과 한국전쟁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그런 시절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며 힘든 보리고개를 넘어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농토를 몇 삼아 사시는 농민이어서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을 만큼 사셨다.

우리 형제들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치시며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좋은 성품을 갖도록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가르치신 덕분이다.

정겨운 시골 마을에서 정 많은 동네

어른들, 친구들, 동네 언니, 오빠, 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던 그 시절의 모습들이 내 기억의 박물관에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좋다. 당시엔 아들 선호사상이 지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은 딸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둘째 딸인 나를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담임이신 박우영 선생님께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적극 도와주셨다.

다행히 나는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중학생이 되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 별 어려움 없이 중,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2. 대학, 청년 시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운 데다 나는 공부를 더하고 싶어서 대학진학을 결심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취업이 보장되고 등록금 부담이 적은

교육대학을 목표로 입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교육대학에 간신히 합격하여 일단은 목표를 이루었다. 학문과 낭만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대학 생활을 시작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대학 생활에 실망했고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없어 방황의 수렁에 빠졌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살아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이 억울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게든 살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어느덧 1학기 말이 되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배가 찾아와서 성경 공부 모임에 우리를 초대했다.

그 모임은 지금의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라는 선교단체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자리였다. 나는 살길을 찾기 위해 성경 공부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어둠던 마음이 밝아지고 두려워 보였던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아담도 살아있는 채 포기하는 것이 억울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 두려웠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던 것이다. 성경 공부와 신앙훈련을 계속하면서 전도와 세계선교 명령을 받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자의 아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평신도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첫해에 1학년을 담임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귀

엽고 사랑스러웠다.

나는 그 아이들을 모두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매일 아침 QT를 하며 기도했다.

짧은 시간에 QT를 깊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전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학교의 주사님과 성경을 공부했다.

한 학부모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그 학부모의 집으로 퇴근하여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다. 마가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학부모가 글도 잘 읽지 못했다.

성경 공부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성경 공부를 마치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그 학생의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이들에게 전도하려고 5Km 떨어진 읍내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에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전파의 열정을 주셨고 나는 힘든 상황들을 이겨 나가며 전도하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전국교회예배안내

영복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 9:00

담임 이충년 목사

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모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

등명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30

담임 류현욱 목사

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진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

새은혜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박형진 목사

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

극동선교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박봉주 목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비길 11-9
전화 010-9980-1156

성인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정원득 목사

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

동주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30
 : 8:00

담임 김양섭 목사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심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

월드비전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김성연 목사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비전가내
전화 010-2301-0898

임마누엘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3:30
 : 7:30
 : 9:00

담임 윤서구 목사

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화랑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

증율산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김정용 목사

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

소성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30

담임 이승규 목사

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

수원성심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부 9:00
 : 2부 11:00
 : 3부 3:00
 : 7:30

담임 박춘배 목사

16220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

은누리사랑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

담임 이해동 목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

꽃밭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박광식 목사

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월로3길 1(성일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

한소망교회

예배시간
새벽 : 5:00
주일 : 11:00
 : 7:30
 : 7:30

담임 김정호 목사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

김제반석교회

예배시간
새벽 : 4:30
주일 : 11:00
 : 2:00
 : 7:00
 : 9:00

담임 이부교 목사

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

온라인 강의로 하는 독학학위, 어렵지 않습니다.

1년 만에 4년제 대학 졸업

“4년제 학위취득! 교육부장관의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독학학위제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합격

독학학위제 시험 응시자
합격률 70% 이상

독학학위제 시험은
시험평가영역내 100% 출제

독학학위제 특징점

1년만에 4년제 학위취득

출석, 과제, 중간/기말 NO

60점이상 합격 / 낮은 합격 기준

시험문제는 지정범위에서만

타 제도 대비 저렴한 교육비

국가시험으로 높은 공신력

고졸이상 누구나 응시가능

시간 구애없이 일 · 학업 병행가능

독학학위제 추천대상

낮은 학력이 고민이라
4년제 학위취득이 목표인 분들

낮은 경쟁률로 쉽게!
명문대 편입이 목표인 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대학원 진학이 목표인 분들

학력제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취업이 목표인 분들

전 공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경영학 | 법학 | 컴퓨터과학
심리학 | 유아교육학 | 간호학 | 행정학 | 가정학 | 정보통신학

문 의
010-6358- 0191 박만진 목사

총신대학교

부속 원격평생교육원

수능없이 in Seoul,
총신대학교 학위받자!



ChongShin University

이시대의 진정한 리더,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학교 유일 신학학사 인터넷과정!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고 총신대학교 학위받자!
국가자격증도 총신원격에서!

-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 기준에 받았던 모든 학점 인정
- 차상위계층 수강료 감면 혜택!
- 모바일 수강 가능으로 학점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은 면접 및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공부는 인터넷으로
학사학위는
총신대학교에서!

{ 학사학위과정 }

- 신학학사 (총신학위/교육부학위)
- 사회복지학사 (총신학위/교육부학위)
- 이동학사 (교육부학위)
- 문학사 (청소년학전공/교육부학위)
- 문학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교육부학위)

{ 자격증 과정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교사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
- 청소년지도사 2급
- 건강가정사

총신원격에서
한국어교원자격
지금 시작하세요.

총신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 총신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 총 140학점중 신학 105학점, 사회복지 84학점 이상 총신대학교 원격 수강시
→ 총장명의 신학사의 경우 서류 및 면접, 졸업사정 통과자에 한함
- 졸업 후 총신대원 및 일반 대학원(석사) 진학
- 총신대학교 온·오프라인 도서관 이용가능
- 풍부한 장학혜택
- 졸업시까지 1:1 맞춤 학습설계를 통한 수업지원
- 컴퓨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원격 조정시스템 지원

문 의
010-6358- 0191 박만진 목사